

덕성여대 가정학과학생회 심포지엄

10년전 성폭행의 충격으로 김 아무개(31·여)씨가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성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있는 가운데 여자대학 가정학과 학생들이 스스로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폭행의 원인과 대처방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덕성여대 가정학과 학생회는 13일 오후 5시 교내 학생회관 3층 다목적실에서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이란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영주(19·가정1)씨는 "강간의 원인이 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김부남씨 사건을 다룬 20여분 짜리 텔레비전 보도 녹화물을 함께 지켜보았다.

김씨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될 때마다 일부 학생들은 남의 일 같지 않은듯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어 같은 과 동료 여학생 2명이 직접 나와 스스로 겪었던 피해사례를 털어놓는 것을 들으며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 생활 가까이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가를 실감했다.

이 학과 3학년인 한 학생의 경우 10대 초반 나이에 어느 비 오는 날 거리로 나갔다가 파란

업을 마치며 정리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성폭력을 야기시키며 성폭력을 당한 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커녕 부당한 대우를 통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통념과 여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학생들은 특히 "성폭력의 사례들에는 바로 여성들누구나가 일상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성적 희롱도 포함된다"며 "오히려 평소 잘 알고 사귀던 남성에게 의해 원치 않으면서 강제로 요구되는 성관계를 여성 스스로 반드시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오용근(23·광운대 제어계측1)씨 등 자리를 함께했던 남자대학생 3명이 전체 남성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뜻을 담아 사회를 맡은 여학생

성폭행 남의 일 아니다

피해학우 체험담 들으며 함께 전율 "남성에 관대한 기존성윤리도 문제"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성충동이란 미명아래 남성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여성에게는 순결을 목숨보다 더 소중한 여걸 것을 강요하는 기존 성윤리와 가치관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선 임진희(19·가정1)씨는 "우리 사회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상적 결혼과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남성위주의 논리로서 사건을 파악, 피해 여성들을 당혹케하는 수사기관이나 부주의를 탓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가족·친지들의 반응도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아픔을 씻어내는 데 큰 지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순서에 이어 참석 학생들은 9살 때 옆집 아저씨에 의해 당한 성폭력의 상처로 평생을 시달리다 끝내 20여년 만에 가해 남성을 살해했다가 최근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부터 아무 등 추행을 당한 뒤 여대생이 된 지금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자신이 아직도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비탄 내리는 날이면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학생들 일부는 바로 옆 자리에서 항상 같이 생활해온 동료가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함께 정도는 약하나마 스스로도 당했었던 성폭력의 기억들을 되살리는 모습이었다.

끝으로 학생들은 이날 심포지

엄에 꽃다발을 주어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심포지엄 준비를 책임졌던 이 학교 학생회 학술부장 이미애(21·가정3)씨는 "지난 7월 중순 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약을 먹인 남성에게 의해 강간을 당한 뒤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피해자와 관련자료를 가까이 하게 되면서 성폭력의 문제가 자신을 포함한 여학생 모두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강혁 기자〉

떠모으 **이곳** **가** **는** **사람들**

정인 지음
값 4200원

물음도 오직여처럼
읽을수록 맛이 나는
책

